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6

SPRING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Care & Love

##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실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센터(3동1층)

## 독 자 Q U I 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6년 5월 22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6년 6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 CONTENTS



## Kosin Spirit

- 04 “물을 좀 달라”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6 칼레오와 함께한 믿음의 성장기 이수린·고신대학교 간호대학
- 08 남아공 땅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김도경·고신대학교 간호대학

## Medical Essay

- 11 모든 현대인들의 끝나지 않는 숙제 다이어트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 14 급성신손상 주요 위험요인과 고위험군 이해하기 신호식 교수·신장내과

## Culture & Life

- 18 미국에서 온 편지 #7 박정현 교수·신경외과
- 21 밑불 김희자·수필작가
- 24 다시 찾는 신불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 28 할머니의 손과 나의 마음 한창희

## Kosin Inside

- 31 여섯 번째 우.부.소 - 전략기획실
- 34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의 꿈을 펼치다
- 37 우리 병원 친절직원
- 38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0 포커스뷰
- 44 +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 46 진료시간표



## 2026. SPRING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6년 3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 “물을 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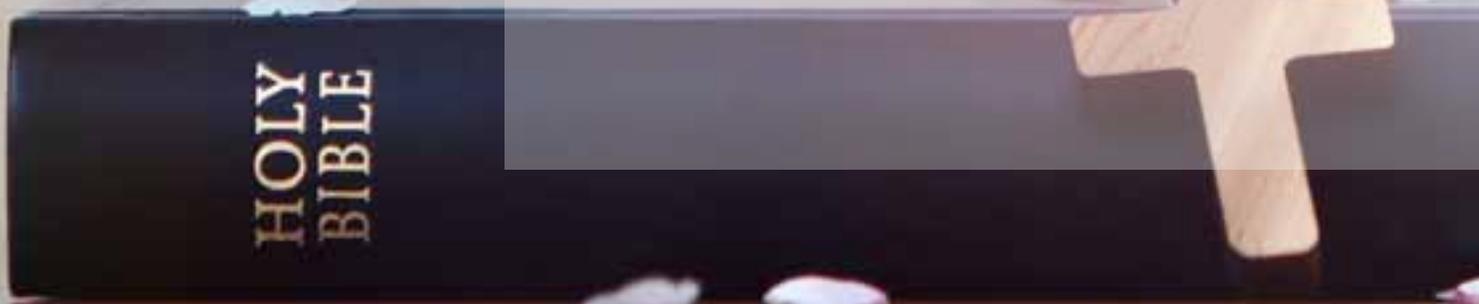
글 | 김영대 · 원목실장

어느 노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러나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스스로를 밤하늘의 별이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흔하디 흔한 벌레와 같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노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내는 반딧불이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상처, 관계의 무너짐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정죄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욕구의 표현일지라도 그 안에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는 비난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다섯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사회적 낙인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한 채 상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도움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지치고 목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은 여인에게 주님은 강한 심판자의 얼굴이 아니라 수치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그녀가 오히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죄 대신 존엄을 선택하시고 비난 대신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 여인의 관심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요 4:20). 더 이상 배제된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 그녀를 향해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수치를 지워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 숨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고 상처 입은 영혼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복음병원이 환우와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돕는 자리 이면서도, 동시에 “물을 좀 달라”고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환자를 질병의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며 그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공동체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고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동행자입니다. 질병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도록 돕는 사명자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에 담긴 겸손과 존중, 그리고 회복의 복음이 복음병원의 모든 만남 속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병원,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빛을 발견하는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칼레오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장기

글 | 이수린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지난해 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첫 남아공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의료봉사에 의미를 두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여 명의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현장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선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교의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네 삶에 관여하고 계신 증거란다. 너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미 시작된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선교를 통해 저는 '부족한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믿음을 키워가던 저는 또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교의 길에 서서, 더욱 분명한 마음가짐으로 복음과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해 다시 남아공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극을 준비하고, 의료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정리하며 이른 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동기와 선후배들, 선생님과 교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많은 분들과 합심하여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을 경유해 남아공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연착되어 두 시간가량 공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낙심하기보다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오히려 무언극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공항 한편에서 연습을 이어가자 많은 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조차 복음을 향한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시간 또한 저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아공에 도착한 뒤, 지난해 방문했던 그레이스펠로십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맡았습니다. 풍선 아트를 잘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며 스티커를 붙여주는 시간



이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더 큰 기쁨만을 좇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기쁨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발방크 교회에서는 유방 초음파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아공 선교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프라이스'가 방문했습니다. 유방암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던 그는, 올해 다시 크게 진행된 암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전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어린 나이의 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원망의 마음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아픔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케이프타운으로 이동해 희망봉에 올랐을 때, 저희는 에스와티니에서 사역 중인 복음전파팀과 수술팀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수술받는 이들과 의료진 모두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칼레오 팀 역시 맡겨진 사역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나눔 시간은 제게 가장 깊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차올랐고, 찬양 '은혜'가 흐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감동과 감사,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렸습니다. 서로를 찾아가 기도해 주고 안아주던 그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이번 여정은,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을 떠나는 날, 한 선배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수린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순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그 질문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창세기 1:27).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삶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칼레오'라는 이름 아래 같은 사명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부족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



남아공 땅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글 | 김도경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저에게 이번 의료선교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의료'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나 일회적인 체험을 넘어, 저의 전공과 미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두신 뜻과 연결된 일이었기에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교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저는 연약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일정들이 겹치면서 선교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무기력과 부족함이 끊임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부르심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유익을 구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준비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길은 제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는 저의 능력이나 준비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서는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는 삶,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이번 남아공 의료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던 남아공 땅에서 저는 또 한 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당연했던 의료 서비스와 늘 가까이 있어 쉽게 여겼던 십자가의 은혜가 그곳 사람들에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의료 환경,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자원, 매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조차도 제가 당연하게 누리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것이 특권이었고, 때로는 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마주하며 제가 누려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야 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저는 단순한 '의료 기독인'이 아니라 '기독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부르심은 치료와 봉사를 넘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방 초음파로 현지인들을 섬기던 중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 중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온 대답은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벌여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치료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던 '치료'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한 환자를 통해 더욱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화상을 입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드레싱조차 받지 못해 고름이 가득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기본적인 처치조차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통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일회성 도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의료 기술과 약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깊은 아픔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복음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이 제게 더 크고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의 작은 미소와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살아 있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들 가운데 심겨 있었고, 그 사랑은 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다고 여겼던 상황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이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저희 칼레오 팀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지 못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셨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헌신하신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막연히 꿈꾸던 간호 선교사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짧지만 깊었던 10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기도 제목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저의 모습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순간의 다짐에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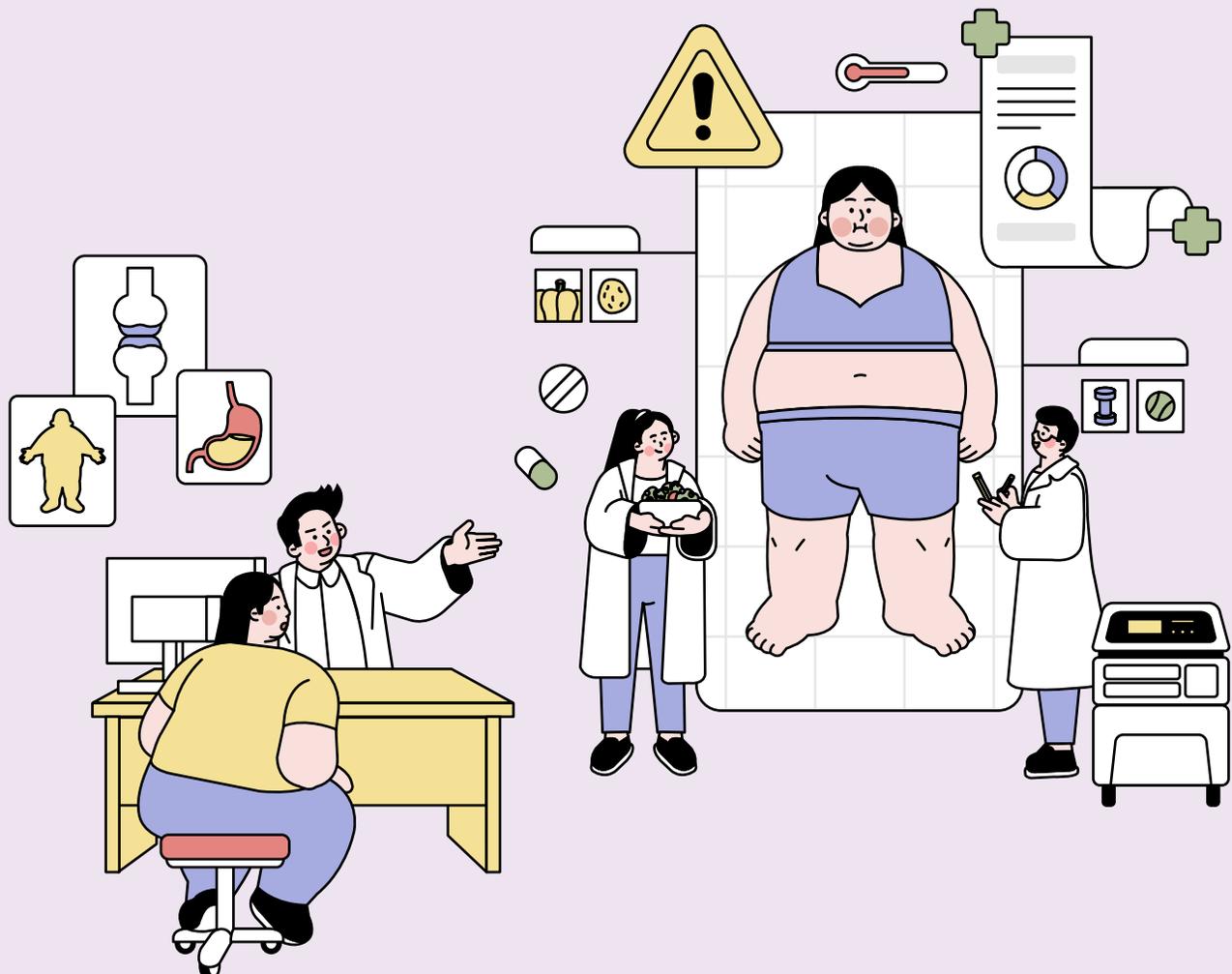
끝으로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신 김영대 목사님, 수술팀으로 헌신해 주신 김구상 교수님과 최영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신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사역한 간호학과 선후배와 동기들, 따뜻한 사랑으로 칼레오 팀을 섬겨주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칼레오, 사랑합니다. ✨

# 모든 현대인들의 끝나지 않는 숙제, 다이어트

## 우리는 왜 배고프지 않는데 먹고 싶을까?

글 |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식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성 식욕(homeostatic appetite)으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한 배고픔입니다. 또 한 가지 식욕은 배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은 식욕인데, 이를 보상성 식욕 또는 쾌락적 식욕(hedonic appetite)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식욕은 뇌에서 조절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항상성 식욕은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조절됩니다.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위가 비게 되고, 위장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에 반해 보상성 식욕은 우리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보상 신호 체계와 관련된 부위에서 조절되며, 도파민에 의해 작용합니다.

비만은 이러한 보상 신호 체계가 먹는 행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만감을 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고, 점점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상성 식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Wegovy)와 터제파타이드(Mounjaro)는 GLP-1 또는 GIP 작용 기전을 가진 약제로, 항상성 식욕뿐만 아니라 보상성 식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항상성 식욕과 보상성 식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GLP-1과 GIP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음식으로 인해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에 포만 신호를 전달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이 호르몬의 작용을 강화하여 식사와 관계없이 포만 신호가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보더라도 이전보다 덜 먹고 싶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배가 고플 때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은 마음과, 식사를 충분히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의 강도가 다른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대 보상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치킨이나 탕후루 같은 고열량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매우 컸다면,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면서 그 만족감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맛있게 느껴졌던 음식이 예전만큼 강한 보상감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음식을 통해 얻던 기대 보상이 줄어들면서 과도한 식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장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상을 했다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활동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것도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다이어트를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건강한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이어트의 목적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점입니다. ✨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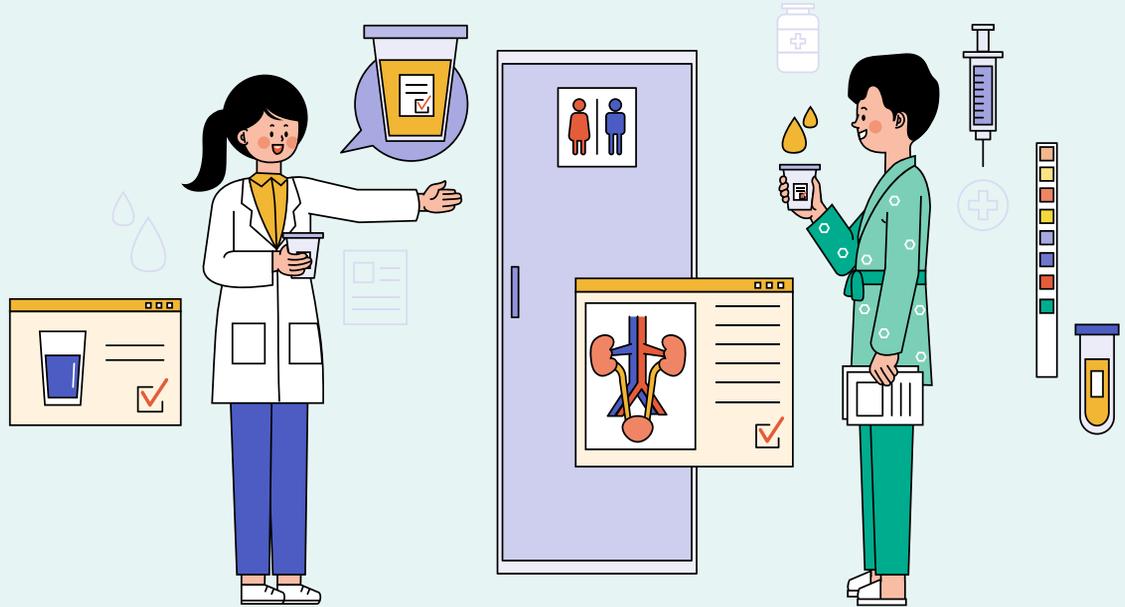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시술

# 누가 위험한가

## 급성신손상 주요 위험요인과 고위험군 이해하기

글 |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꼭 기억할 내용 3가지

□ 급성신손상은 **콩팥 기능이 갑자기 감소하는 상태**로, 병원 밖에서도 생기지만 병원(수술·감염·약물)에서 특히 흔합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원인을 바로잡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급성신손상은 대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탈수/저혈압 + 감염 + 약물 (독성) + 기존 질환(당뇨·심부전·만성콩팥병)'이 겹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겹침이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 예방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 (1) 아플 때 탈수 관리
- (2) 위험 약(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남용 피하기
- (3) 조영제·수술·항생제 전후 신기능 모니터링

(4) 소변량 감소·부종·심한 무기력 같은 경고등을 놓치지 않기.

### 들어가며

급성신손상은 **콩팥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콩팥은 평소에도 조용히 일하지만, 한 번 흔들리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급성신손상이 생기기 전에 대개 '위험한 상황'이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는지 알면 많은 급성신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 지침과 최신 연구 결과에서는 급성신손상 예방을 위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고, 약물·수액·검사를 **안전 중심**으로 조정하는 접근을 강조합니다.

### 급성신손상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급성신손상**은 수시간~수일 사이에 콩팥 기능(대표적으로 크레아티닌) 변화가 생기거나 소변량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변이 안 나온다'가 꼭 급성신손상의 전부는 아니고, 소변량이 유지되면서도 콩팥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성신손상이 단기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급성신손상이 이후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회복 이후에도 추적이 필요하다고 여러 자료가 강조합니다.

### 급성신손상 위험요인

크게 3층 구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급성신손상 위험은 보통 **'사람(기저 위험) + 상황(유발 사건) + 약/독성(추가 부담)'**이 겹쳐서 커집니다.

#### 사람(기저 위험): '콩팥의 여유분'이 적은 환자들

- 기존 만성콩팥병, 단백뇨가 있는 사람(이미 콩팥 예비력이 감소)
- 고령(혈관 탄력 저하, 근육량 감소로 이상을 늦게 알아채기 쉬움)
- 당뇨병, 고혈압(콩팥의 미세혈관이 취약해지기 쉬움)
- 심부전/간경변(혈류·수분 조절이 불안정해지기 쉬움)
- 암 치료 중(항암제, 감염, 영양 저하 등이 겹치기 쉬움)
- 장기이식 환자/면역억제제 복용자(감염·약물 독성 위험 증가)

#### 상황(유발 사건): '피가 줄거나(탈수/저혈압) 염증이 폭발하는' 순간

- 탈수: 설사·구토·고열, 식사/수분 섭취 저하, 과도한 이뇨
- 패혈증/중증 감염: 폐렴, 요로패혈증 등(전신 염증과 혈압 저하)
- 대수술/외상: 출혈, 저혈압, 조영제, 항생제, 통증약이 함께 쓰임
- 조영제 검사(특히 위험군에서): 추가 위험 평가·수분 전략·모니터링 필요
- 요로폐쇄: 결석, 전립선비대, 종양 등(소변길이 막혀 역압이 생김)

#### 약/독성(추가 부담): '평소엔 괜찮아도, 아플 때는 위험해지는 약'

최근 지침과 교육 자료는 신독성 약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탈수나 감염 같은 급성 상황에서는 약의 영향이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 진통소염제(NSAIDs): 콩팥 혈류를 줄여 급성신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어(특히 탈수·고령·만성콩팥병에서) 주의
- 레닌엔지오펜산알도스테론 억제제(엔지오펜전환효소억제제/엔지오펜치단제)와 이뇨제: 평소 이득이 크더라도 '탈수/저혈압' 시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의료진 지시 하)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반코마이신 등 일부 항생제(용량·기간·혈중농도·신기능에 따라 위험)
- 조영제(특히 위험군): 적응증/대체검사/수분 전략/약 조정이 중요
- 양성자펄스차단제(위산억제제), 일부 한약·건강기능식품(성분 불명/중금속/약물상호작용 가능): '약'처럼 확인 필요

### 고위험군을 '한눈에'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이 많을수록, 급성신손상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사구체여과율이 낮다고 들었다(만성콩팥병), 또는 단백뇨가 있다.
- 65세 이상, 또는 최근 체중 감소·식사량 감소가 있다.
- 당뇨병/심부전/간질환/암 치료 중이다.
- 최근 1주 내 설사·구토·고열·식사 저하가 있었다.
- 항생제·조영제 검사·수술·입원 치료가 예정/진행 중이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한다.
- 소변이 줄었다, 붓는다, 갑자기 기운이 없다(경고 신호).



**‘이럴 때는 바로 확인’: 급성신손상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

- 소변량이 확 줄거나(특히 밤나절~하루 이상), 소변이 거의 안 나옴
- 새로 생긴 심한 부종(다리·얼굴), 숨참(폐부종 가능)
- 심한 무기력, 메스꺼움/구토가 지속
- 고열·오한·훈미(중증 감염/패혈증 가능)
- 옆구리 통증과 함께 소변이 안 나옴(결석/폐쇄 가능)

**예방: ‘한 번의 교육’이 한 번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성신손상 예방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알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제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 평가·수분 상태 관리·신독성 약물 조정·모니터링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여러 기관은 ‘아플 때 약 조절(sick day guidance)’ 교육을 환자 안전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인이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 내 콩팥 수치(크레아티닌/사구체여과율)를 알고, 검사 결과를 사진/메모로 남기기
- 설사·구토·고열 등으로 탈수가 의심되면, 수분 섭취를 늘리되(금지 지시가 없는 범위), 어지럼·소변감소가 있으면 즉시 진료받기
- 진통소염제를 ‘습관처럼’ 반복 복용하지 않기(특히 고위험군)
- 새 약(항생제/항암제/한약·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시작할 때 ‘콩팥에 안전한지’ 질문하기
- 조영제 검사/수술 전에는 고위험군임을 미리 알리고 예방 전략(수분/약 조정/모니터링) 상의하기
- 소변량과 체중 변화(갑자기 1□2kg 증가 등)를 관찰하기
- 감염(열, 오한, 기침, 배뇨통)이 의심되면 ‘버티지 말고’ 빨리 치료받기
- 회복 후에도 재검을 통해 ‘완전 회복인지’ 확인하기(급성신손상 후 만성콩팥병 위험 증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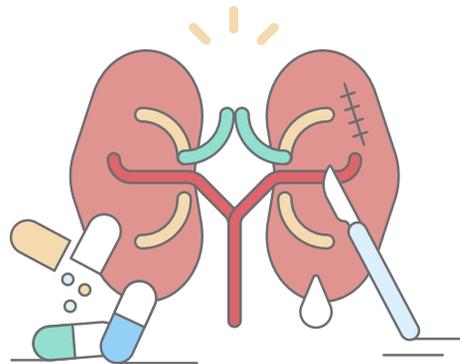
**‘위험을 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돌봄의 지혜입니다**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지혜롭게 돌보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그릇입니다. 급성신손상 위험을 알고 대비하는 일은 과도한 염려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물을 한 잔 더 챙기고(가능한 범위에서), 아플 때 위험 약을 무심코 계속 먹지 않고, 작은 경고등을 놓치지 않는 것□□ 평범한 성실함이 한 사람의 콩팥과 삶의 시간을 지켜 주기도 합니다.

**맺으며**

급성신손상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위험요인이 쌓이고 겹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누가 위험한지 알면, 많은 급성신손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더 일찍 측정하고, 더 일찍 상담하고, 더 일찍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작은 조기 대응이 회복을 앞당기고, 만성으로 가는 길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치의(신장내과전문의, 투석 전문의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콩 소식지

[https://www.kucm.ac.kr/bbs/board.php?bo\\_table=trans\\_newsletter&page=](https://www.kucm.ac.kr/bbs/board.php?bo_table=trans_newsletter&page=)

콩팥이식 및 콩팥질환 전문가 자료실\_고신의대 장기이식연구소

[https://www.kucm.ac.kr/transplantation\\_index.php](https://www.kucm.ac.kr/transplantation_index.php)



WATCH LIST

신호식 교수님이 알려주는  
**만성콩팥병과  
신장이식 이야기**

KNN 공개클리닉 웹

**가려움증이 있다면  
신부전증을 의심하라!**

**만성 콩팥병**

발송일 2025.09.27

KNN 공개클리닉 웹

**몸 속 정수기를 살리자**

**만성 콩팥병**

발송일 2021.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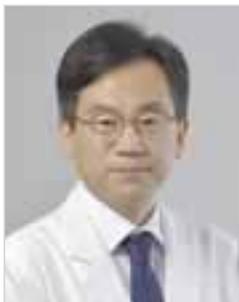
고신대학교병원

YouTube

콩팥질환 관련  
**고신의대 신장내과  
유튜브 바로가기**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 현,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회장
- 현, 사단법인 생명잇기 총무이사
- 현,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학술위원회 위원
- 전, 미국 하버드의대 BWH 신장내과 교환교수/이식연구센터 연구원



**전문진료분야**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특수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 미국에서 온 편지 #7

## <UCSD 연수 4개월을 맞이하며>

글 | 박정현 교수 □ 신경외과



- 샌디에이고에서 배우는 연구와 일상의 균형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UCSD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소속으로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디뎠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이곳의 연구 리듬과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연수 일정으로 보면 아직 초중반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연구자이자 임상의로서 많은 생각과 배움을 얻고 있어 이 시점에서 중간 소회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태평양을 품은 도시,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는 '연구 도시'라는 표현보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 강하지 않은 햇살,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마주하는 바다의 풍경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고를 수 있는 이 도시의 분위기는, 장기 연수를 이어가는 데 있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UCSD가 자리한 La Jolla 지역은 학문적 긴장감과 자연의 여유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캠퍼스를 벗어나 몇 분만 걸으면 바다와 마주하게 되고, 절벽 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연구 생각들이 잠시 정리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짧은 산책이 때로는 긴 연구 회의보다 더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La Jolla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사자들은 이 도시가 지닌 여유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와 성과에 쫓기기보다,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환경. 샌디에이고에서의 일상은 연구자에게도 '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 La Jolla 해변의 바다사자  
샌디에이고 해안 생태를 상징하는 풍경

## UCSD에서 마주한 연구의 방식



▲ UCSD 신경외과 수술실  
최신 장비를 활용한 뇌혈관 수술 장면

UCSD 신경외과에서의 연수는 단순히 새로운 연구 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연구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상과 연구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과 임상 경험에서 출발한 질문이 곧 연구 주제가 되고, 연구 결과는 다시 임상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수술실과 연구실, 그리고 회의실을 오가며 이루어지는 토론 속에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과정, 가설을 검증하는 태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연구자로서 제 시야를 한층 넓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 문화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까지도 모두 연구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임상과 연구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맺음말-연수의 중간에서

아직 연수의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지난 4개월은 제게 충분히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환경에 적응하며 느꼈던 긴장감, 언어와 문화의 차이 속에서 마주한 시행착오, 그리고 점차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며 얻은 작은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남은 연수 기간 동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경험한 연구 문화와 사고방식을 정리하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과 신경외과학교실의 임상·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샌디에이고에서의 이 시간이, 개인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병원의 학문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박정현** 교수 | 신경외과

□ 전문진료분야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 밑볼

글 | 김희자 수필작가



말갈게 개는 하늘에서 가는 빗방울이 흩어진다. 할머니는 젖은 마음을 숨기려는 듯 야시비가 내린다며 하늘을 본다. 밀불의 불구멍을 맞추듯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연탄이 빈 창고를 채운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창고 문짝이 간드랑거린다. 처마에는 작은 메주 두 개가 할머니의 박박한 삶처럼 매달려 있다.

창고에 쟁여진 연탄을 보며 마치 부자가 된 듯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방 허리를 굽실거린다. 할머니 집 연탄 창고는 지난겨울이 끝날 무렵부터 텅 비었다. 마지막 남은 연탄마저 타서 재가 되고 시커멓게 분칠을 한 창고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찬바람이 나도는 가을까지 비어 있던 창고가 채워지자 할머니의 골진 얼굴이 펴지며 얇은 웃음이 입가에 번진다. 색 바랜 찻잔에 내어 온 유자차가 넘칠 듯 찰랑댄다. 할머니는 차를 내어 온 쟁반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댄다.

“가심에 불씨가 없으면 이런 일은 못 하제.”

겨우내 땀겨리가 될 연탄을 준다기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할머니는 고마움 반과 부끄러움 반이 섞인 마음을 유자차에 띄우고 나왔다. 한 뼘쯤 열린 낡은 현관문 사이로 속 살림이 들여다보인다. 홀로 사는 집주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기에 독거노인인 할머니가 주인인 양 집을 지킨다. 습한 기운 때문인지 천장에 붙은 벽지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너덜댄다.

거실 한 편의 낮은 탁자에는 피붙이 하나 없는 할머니의 마음이 동지를 튼 것인지 오순도순 모인 닭 가족의 모형이 울리어져 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본 내 눈에 물기가 끈다. 잔해지는 마음을 외면하려고 바깥으로 눈길을 돌려 연탄을 나르던 사람들을 바라본다. 언제 절인 유자인지 색 바랜 유자차는 금방 식었지만, 정성이 담긴 찻잔을 말끔하게 비운다. 할머니의 혼잣말처럼 야시같이 내리던 비가 그새 그쳤다. 말개진 하늘을 올려다보던 나는 유자차의 찌꺼기까지 들이켜고 있는 J 선배의 등에 시선이 멈춘다.

J 선배가 덧입은 옷 색은 빛을 상징하는 주황색이다. 등 뒤에 새겨진 하트가 빛을 발하여 뜨겁다. 그는 주말이면 읍지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찾다니며 온기를 나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취미를 즐기거나 나들이를 나갈 터인데 그는 주말마다 하트가 그려진 옷을 입고 그늘진 곳에 가서 뜨거운 존재가 된다.

이태 전, 마음에 여유가 생겨 이웃에게 눈을 돌리면서 함께하는 선배다. 그늘진 곳에서 만나는 그는 늘 일복 차림이었다. 천장이 낮은 사람들의 집을 찾다니며 여름에는 도배를 해주고 겨울에는 연탄을 넣어 준다. 여름에는 풀이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있었고, 겨울이면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나와 까만 연탄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처럼 얼룩진 벽은 그의 손길만 닿으면 말끔하게 고쳐졌고, 가을의 끝자락에 넣어 준 연탄은 찬 방의 밀불이 되었다. 거칠어지는 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읍지 사람들의 가슴을 데워 주었다.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가 혼자 사는 집에 연탄을 넣으러 갔다가 토악질을 할 뻔했다.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어둡한 공간에 이불이 검불뎡불 영켜 있고 온 방이 쓰레기장이 되어 구더기가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런 방을 J 선배는 가장 먼저 들어가 소제를 했다. 몇 번이나 음식로 나갔지만 그가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더럽고 힘든 일에 앞장을 서는 그를 보면 뒷전에서 눈만 멀뚱거리는 나 자신이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세상에는 거침없이 소리를 내며 타오르다 이내 불꽃이 사그라지고 마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밑불로 은근하게 남는 J 선배 같은 사람도 있다. 그는 몸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 푼푼이 모은 용돈으로 해마다 연탄을 기부한다. 그의 따스한 가슴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빈 마음을 채워 주고 훈훈한 기운을 전한다. 밑불은 온몸으로 자신을 태워 한 덩이 재로 남지만 다른 연탄에 불씨가 옮겨지면 하염없이 뜨거워진다. 말없이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살맛을 도드라지게 하는 사람은 밑불 같다.

다가올 겨울이 걱정 없다며 할머니는 콧소리가 섞인 유행가를 구성지게 부른다. 노랫소리는 까치 감을 매달고 있는 나뭇가지로 올라가 걸린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가난하고 쓸쓸한 할머니를 신명 나게 만든 것은 밑불 같은 사람의 가슴이다. 별걸게 달아오른 연탄 밑불이 새로 놓인 연탄에게 불꽃을 넘겨주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선득한 방구들을 데우는 밑불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직 따스하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외로운 마음들을 보듬는 사람을 보면 주위 사람들도 그 따스함이 전염된다.

할머니가 연탄을 들고 좁은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 뒤를 J 선배가 따라 들어가 불구멍을 맞추고 불씨를 명긴다. 식었던 아궁이가 별걸게 달구어지고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진다. 부엌 입구에 핀 키 작은 소국이 그들을 따라 웃는다. 그가 지핀 밑불은 겨우내 꺼지지 않고 할머니의 찬 겨울을 데워 줄 것이다. 따뜻한 인간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겨울은 춥지 않고 희망적이다. 할머니네 아궁이에 밑불을 살린 그가 또 다른 집을 향한다. 나도 가슴에 불씨를 품으며 까맣게 변한 장갑을 다시 끼고 작은 대문을 나선다.

거리에 내린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몸을 뒤적이며 뒹군다. 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드는 계절이다.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쓸쓸해진다. 세상은 한쪽이 양지라면 한쪽은 음지이다. 별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을 데워 주는 일, 그게 바로 밑불 같은 나눔이 아닐까. J 선배가 손수레에 또 연탄을 싣고는 앞장을 선다. 나는 그가 끄는 손수레에 힘을 보태며 가파른 언덕 길을 오른다. ❀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다시 찾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신불산 오름길에 본 간월산 ▲

那將月姥松冥司 어찌면 월하노인을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부부가 처지를 바꾸어서  
 我死君生千里外 나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남아  
 使君知我此心悲 그대로 하여금 나의 이 슬픔을 알게 할까?

「悼亡도망」 추사 김정희의 한시. 뒤늦게 아내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하며 썼다는 슬픔과 그리움에 관한 시이다. 다소 뜬금없고 억지스런 면이 없지 않지만 곱씹어 생각해보면,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도 유배된 몸이라 어찌할 길이 없어서, 길을 나설 수 없어서 더 사무친 마음이 담긴 이 시는, 어찌면 '어디로 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추사의 사무치는 슬픔과 그리움 사이로 난 길. 여러 번 시를 되뇌다 문득 산행을 생각했다. 지척에 두고도, 늘 그림자 하면서도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산으로 가는 길을…….

### 바람과 햇살 사이로 난 길

가보면 유럽의 알프스가 절대 부럽지 않다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그곳에는 쉬이 오고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다. 그 이름을 오죽하면 '하늘역새길'이라 부를까? 이름만큼 아름다운 길이 가없이 비단자락처럼 펼쳐져 있다.

신불산은 해발 1,159m로 영남알프스의 산군들 중 4좌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상북면과 삼남면에 걸쳐 있으며, 그 이름이 의미하듯 신들의 거처를 숨긴 신령스런 산이다. 산 아래에는 배내골 작천정 지수정동굴나라 신불산자연휴양림 등의 명소가 있고, 산속에는 '비류직하삼천척'의 홍류폭포와 파래소폭포, 역새로 유명한 간월재와 신불평원을 품고 있다.





▲ 가을날의 신불재 풍경

신불산으로 가는 길은 영어의 몸으로 발이 묶였던 '추사의 길'과 달리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길이다. 슬픔 사무친 그리움의 길이 아니라 만남을 앞둔 설렘과 그리움 사이로 난 길이다. 또한 변화하는 계절에 대한 기다림 사이로 난 길이다. 추웠던 날이 끝나는 겨울과 따스함이 찾아오는 봄 사이로 난 길이며, 바람과 햇살 사이로 난 길이다. 그래서 그 계절의 끝을 지나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 버스를 타고 가 시작하는 산행

그래서 이즈음의 계절을 걸어가기에 안성맞춤의 길이다. 버스만 잘 선택해 타고 내린다면, 길은 간월산과 신불산 사이로 혹은 영축산과 신불산 사이로 마중 나온 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언양에서 353번 버스를 타고 배내골 주암마을 입구나 신불산 자연휴양림앞에서 내리면 잘 닦여진 임도를 따라 많은 길 중 가장 편안하게 간월산과 신불산 사이로 난 길의 끝 간월재에 도착한다. 태봉마을에서 버스를 내린다면 계곡을 따라 신불산 자연휴양림과 파래소폭포를 지나고 오름길 산행 후에 영축산과 신불산 사이로 난 길을 걸어 신불재에 다다를 수 있다.



▲ 신불산 정상에서 공룡능선 가는 길



간월재 풍경 ▲

다른 방법으로 철도 원동역에서 양산8번 버스를 타면 파래소폭포 배내골 종점에서 내린 후 파래소폭포 방향으로 신불재에 갈 수 있다. 신불재에 오르는 방법으로 양산이나 언양에서 13번·323번·1723번 등의 버스를 타고 가천리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으나 초입까지 제법 먼 길을 걸어야 산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기에 망설여진다.

언양에서 343번 버스를 타고 등억온천지구 인근의 복합웰컴센터에서 산행하는 길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주변 풍경이 예전과 너무 바뀌어 격세지감이 절로 든다. 정겹던 간월산장의 모습과 이즈음쯤 산장 앞에서 행해지던 지신밟기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다. 초입에서 시작된 산행은 홍류폭포 입구에서 갈라져 2가지 길로 나뉜다. 하나는 계곡을 지나고 숲길을 오르다 시멘트로 포장된 임도와 만나 간월재로 간다. 다른 하나는 홍류폭포를 지난 후 신불공룡능선이라고도 불리는 갈바위능선을 넘어 신불산 정상으로 곧장 오르는 암릉과 암릉 사이로 난 길이다.

간월재와 신불재에서는 나무계단이 놓인 오름길을 2~30여분 정도 제법 숨차게 오르면 신불산에 도착한다.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는 울산 앞바다가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는 또 다른 영남알프스의 산들이 널찍이 펼쳐진 병풍 속 그림인양 빙 둘러 수려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사이사이로 난 하늘역새길, 그 아름다운 길 위로 고운 넘 오시듯, 봄이 바람과 햇살 사이를 걸어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 ❀



홍류폭포 ▲

독자 에세이 #05

# 할머니의 손과 나의 마음

글 | 한창희



### ⊕ 갑작스러운 입원

지난 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할머니였기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나는 할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내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잡아왔던,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 손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마음이 무거웠다.

### ⊕ 병실에서의 시간들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돌보는 일에만 익숙하셨던 분이다.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할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다. 처음 며칠간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시며 우리를 돌려보내려 하셨지만, 눈빛만으로도 할머니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간병을 담당해 주신 김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다.

“어르신들은 가족이 곁에 있을 때 훨씬 빨리 회복되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자주 와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곁에 앉아있기만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조금씩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다.

### ⊕ 작은 기적들

“네가 어릴 때 말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감기에 걸려 끙끙거릴 때마다 밤새 간호해주셨던 이야기들. 병실이라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햇살 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네 손이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손보다 훨씬 크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내 손에 의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순간 이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뿌듯했다.

### ⊕ 재활의 시간

할머니의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던 할머니가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 물리 치료실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서로 격려하며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느꼈다.

“오늘은 복도 끝까지 걸어볼 거야.” 할머니의 목표는 매일 조금씩 높아졌고, 그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드리려 노력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말들을 똑같이 돌려드렸다.

“할머니, 천천히 해도 돼요. 할머니 속도에 맞춰 갈게요.”

### ✦ 퇴원하는 날

한 달 반 만에 할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 왔다. 짐을 챙기면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 나이에 손자한테 이런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의 백분의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젠 신세가 아니라 가족이니깐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 ✦ 지금의 할머니

지금 할머니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으시지만, 웃음소리도 예전과 같고 손자들 걱정하시는 것도 여전히다. 가끔 병원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네가 매일 외준 덕분에 빨리 나왔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정작 빨리 나온 것은 할머니가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 ✦ 마음의 치유

병원에서의 한 달 반은 할머니에게는 몸의 치유 시간이었지만, 내에게는 마음의 치유 시간이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할머니와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지금도 할머니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던 병원 복도, 함께 웃고 울었던 병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나를 치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 싶다. 할머니가 내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내가 할머니께 돌려드리면서. ✦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 여섯 번째

## 병원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전략기획실



우·부·소

전략기획실

### 01 OUR IDENTITY 설계하고, 운용하고, 입증하다.

병원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하는 조직이 바로 전략기획실입니다. 전략기획실은 병원의 지도를 그립니다. 막연한 미래를 데이터로 구체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하며, 병원의 가치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전략적 자원 배분을 핵심경쟁력으로 삼아, 단순한 행정부서를 넘어, 병원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설계합니다.

## 02 INSIDE THE TEAM 전략기획실을 움직이는 3개의 핵심 엔진



### 기획계 The Architect

#### 미래를 설계하다

“우리의 고민은 병원의 지향점이 됩니다.”

기획계는 병원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부터 조직, 공간, 장비, 제도까지 병원의 운영 기반을 구조적으로 설계합니다.

- Master Plan : 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성장 전략 수립
- Smart Operation : 공간과 조직을 최적화, 효율적 진료환경 구성
- New Insight : 신의료기술 및 장비 도입 검토, ABC 원가분석 운용



### 예산계 The Strategist

#### 가치를 극대화하다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언어입니다.”

예산계는 병원의 재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병원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 Precision Budgeting : 병원 종합 예산 수립 및 재정 운영 관리
- Performance Control : 예산 집행 분석
- Data Flow : 병원 운영 실적 통계 및 경영 의사결정 지원



### 평가전담계 The Guardian

#### 병원의 위상을 강화하다

“우리의 증명이 병원의 경쟁력이 됩니다.”

평가전담계는 병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각종 의료질 평가를 통해 병원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 Top-tier Statue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대응 및 유지
- Quality First : 의료질평가 및 적정성 평가 대응
- Strategic Positioning : 병원의 객관적 경쟁력 확보 및 대외 신뢰도 강화

## 03 WHY WE MATTER 전략기획실이 존재하는 이유

전략기획실은 병원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진료와 행정, 현장과 경영,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용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병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을 입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전략 조직입니다.

또한, 복잡한 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현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04 INTERVIEW “병원의 미래는 준비하는 조직이 만드는 것입니다”



서경원 전략기획실장  
(위장관외과 교수)

“병원은 의료기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경영조직입니다.

좋은 진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데이터 기반 경영, 전략적 자원 배분, 미래 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병원의 전략이 되고, 그 전략이 병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 05 MESSAGE FROM STRATEGIC PLANNING OFFICE “병원의 미래는 준비하는 조직이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일관된 실행, 이 3가지 틀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연성을 통해 완성됩니다.

전략기획실은 병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통해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를 성과로 입증합니다.

우리가 수립하는 하나의 계획은 병원의 운영 기준이 되고, 우리가 축적하는 하나의 데이터는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도 전략기획실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신뢰받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병원의 방향을 설계하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은 병원의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

우.부.소

전략기획실



## “관리과에서 배워가는 병원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7월 입사해 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관리과는 일반소모품을 비롯해 의료소모품과 비품, 시약과 약품 재료, 시설 소모품, 가스 및 피복 등 병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일반소모품 업무를 맡아, 원내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업무 흐름에 맞게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시스템 전반이 익숙하지 않아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품 이름이나 이미지 하나만을 단서로, 기존에 등록된 물품 코드를 찾아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탬플러 심’으로는 검색되지 않던 물품이 ‘호치키스심’이라는 명칭으로 입력하자 확인되었을 때처럼, 제가 알고 있던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래서 관리과로 문의를 주시는구나” 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이어가며 마주한 여러 난관들은 관리과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의 도움과 조언 속에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역할 또한 점차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도 있어, 무리하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간식도 갑자기 끊기보다는 제게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과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배려 깊은 말씀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겨진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실하며, 작은 일 하나에도 책임을 담아 병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차분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영상의학과  
이제성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New face**  
처음의 일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 “집중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방사선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4월 입사해 영상의학과 영상진단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이제성입니다. 어느덧 병원에 입사한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고 느껴질 만큼, 환자분들을 마주한 하루하루는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출근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환자복을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오늘 만나게 될 환자분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영상진단실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기본적인 흉부 검사부터 전신의 뼈와 관련된 다양한 부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입원 환자분들뿐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위해 방문하시는 외래 환자분들도 영상진단실을 찾습니다. 연령과 상태, 검사 목적이 모두 다른 만큼 그에 맞는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고려하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집중력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환자분들을 부르는 말투와 대하는 태도조차 어색했고, 검사 과정 역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환자분의 자세를 직접 잡아드려야 하다 보니,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통증을 느끼시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작은 접촉 하나에도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은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아직 배워야 할 점은 많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조금은 격려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함께 입사한 동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몸이 많이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어떤 환자분들을 만났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되짚어 보며 아쉬운 점과 배운 점을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하루들이 쌓여 지금의 제가 되었고, 병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환자분들과 마주하는 순간이 찰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환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신뢰와 안정을 전할 수 있는 방사선사로, 작은 장면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환자를 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임리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11월 입사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임린 나입니다. 2024년 6월 계약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약 15개월의 시간을 지나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던 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병원은 제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진단검사의학과 세포유전 검사 파트에서 자가면역질환 검사, 유세포분석, 세포유전 검사, 성분채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인수인계를 받으며 노트와 볼펜을 늘 지니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했고, 약 두 달 반이 지난 지금은 부족함 속에서도 점차 업무에 적응하며 작은 성장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작고 귀여운 비송 반려견이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덕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저녁 시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직접 저녁을 준비하고, 이후에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제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건지, 강아지가 저를 운동시키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간식을 직접 만들어 강아지를 키우는 선생님들과 나누며 소소한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입사 후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매일 아침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업무 속에서 배려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조직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맡은 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부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조직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년 뒤의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처럼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가자.” ✨

2025년 12월 ~ 2026년 2월



##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341병동 | 342병동 | 351병동 | 362병동 | 503병동 | 505병동 | 507병동 | 509병동 | 510병동 | 511병동 | NICU | 내분비내과 외래 | 내시경검사실 |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 복음찬양단 | 심장내과 외래 | 영양실 | 입퇴원계 | 주사실 | 차량계 | 치과 외래 | 혈액종양내과 외래

강미나 간호사(위장관외과) | 강서진 사원(원무과) | 강은경 간호사(내시경검사실) | 고경은 간호사(피부과) | 고광현 간호사(신경외과) | 고나희 간호사(509병동) | 고택용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구남이 간호사(낮병동) | 권이연 간호사(SCU) | 권정옥 간호사(508병동) | 김가영 간호사(MCU2) | 김구상 교수(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유방외과) | 김다미 간호사(초음파진단계) | 김대훈 방사선사(방사선종양학과) | 김명숙 사원(무인차방전) | 김민경 간호사(유방외과) | 김민주 간호사(내분비외과) | 김민지 간호사(362병동) | 김민화 간호사(산부인과) | 김שמ미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수진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김시은 간호사(509병동) | 김아리 간호사(심장내과) | 김연정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김영나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김영선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선 수간호사(주사실) | 김유진 간호사(소화기내과) | 김은숙 간호사(504병동) | 김은영 간호사(안과) | 김재빈 사원(보안팀) | 김정임 간호사(내분비내과) | 김지현 간호사(간담체외과) | 김진선 여사(미화부) | 김하은 간호사(351병동) | 김한나 간호사(508병동) | 김한주 간호사(성형외과) | 김현숙 간호사(508병동) | 김현지 간호사(361병동)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희진 교수(치과) | 나은서 간호사(342병동) | 도윤성 방사선사(영상의학과) | 라보배 간호사(대장항문외과) | 마미경 간호사(간내과) | 문예원 간호사(506병동) | 문예진 교수(대장항문외과) | 박경란 교수(방사선종양학과) | 박무인 교수(소화기내과) | 박שמ미 간호사(소화기내과) | 박선영 수간호사(511병동) | 박수연 간호사(351병동) | 박준우 간호사(511병동) | 박태훈 교수(내분비내과) | 박하민 간호사(352병동) | 배근하 간호사(504병동) | 배동신 임상병리사(채혈실) | 배선혜 간호사(508병동) | 배수영 간호사(351병동) | 배호선 간호사(508병동) | 백일신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백재행 간호사(511병동) | 변시연 간호사(508병동) | 서광일 교수(간내과) | 석여은 간호사(511병동) | 성미현 간호사(간내과) | 손설비 간호사(MCU2) | 손성욱 방사선사(방사선종양치료실) | 손찬희 간호조무보호사(511병동) | 손혜진 간호사(342병동) | 송수현 간호사(낮병동) | 송지민 간호사(504병동) | 송지민 간호사(심장내과) | 신동훈 교수(간담체외과) |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 신아름 간호사(간내과) | 신지연 간호사(508병동) | 신현정 수간호사(504병동) | 심대무 교수(정형외과) | 양인자 수간호사(509병동) | 양혜현 간호사(신경외과) | 엄상일 전공의(안과) | 예영란 수간호사(341병동) | 오영림 교수(산부인과) | 옥철호 교수(호흡기내과) | 왕해진 간호사(신경과) | 우민우 간호조무보호사 | 윤기영 교수(위장관외과) | 윤미향 주임(영상의학과) | 윤상진 방사선사(방사선종양학과) | 윤소라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윤예림 간호사(낮병동) | 윤혜나 간호사(유방외과) | 이경진 간호사(361병동) | 이민진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이보민 간호사(내분비내과) | 이선주 수간호사(362병동) | 이수정 간호사(마취통증의학과) | 이승현 교수(대장항문외과) | 이에나 간호사(510병동) | 이윤지 사원(원무과) | 이은정 간호사(362병동) | 이재복 방사선사(인터벤션실)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이정욱 교수(간내과) | 이주희 간호사(508병동) | 이지민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이지윤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이지현 간호사(간내과) | 이진우 주임(보안팀) | 이하연 간호사(가정의학과) | 이형신 교수(이비인후과) | 이호임 간호사(342병동) | 임성일 교수(심장내과) | 임승희 간호사(소화기내과) | 임학 교수(신장내과) | 장민수 교수(피부과) | 장윤미 간호사(주사실) | 전미연 간호사(산부인과) | 전유리 간호사(이비인후과) | 정다운 간호사(MCU2) | 정미라 주임(진료협력센터) | 정שמ미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정성의 교수(유방외과) | 정세빈 간호사(심장내과) | 정세영 간호사(유방외과) | 정숙영 간호사(낮병동) | 정은지 간호사(342병동) | 정한송이 간호사(심장내과) | 정현 수간호사(510병동) | 조근희 간호사(511병동) | 조민주 간호사(낮병동) | 조사랑 전공의(외과) | 조유진 사원(보안팀) | 조지영 간호사(CT실) |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 조혜진 간호사(511병동) | 조희지 간호사(유방외과) | 주영숙 주임(진료협력센터) | 진혜경 간호사(509병동) | 차태준 교수(심장내과) | 채봉화 간호사(신경과) | 최은지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최종현 전공의(이비인후과) | 최진주 간호사(508병동) | 최진혁 교수(유방외과) | 최향숙 수간호사(508병동) | 최혁준 전공의(정형외과) | 추주희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한임경 간호사(이비인후과) | 함기주 사원(보안팀) | 현종한 방사선사(방사선종양학과) | 홍성경 간호사(503병동)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릴레이'

#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체내과 서광일 교수님 추천

병리과 **전요한**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해 조직 판독을 해주시는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판독지를 읽을 때마다 성실함과 진료에 임하는 진지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의사에게 답을 주는 의사'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병원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전요한 교수님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



병리과 전요한 교수님

조용히 많은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업무가 몰릴 때면 점심도 거르며 도와주시는 병리사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제가 원활히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실 김영선 수간호사 선생님 추천

보안팀 **이진우**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이진우 선생님은 병원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병원 곳곳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사실에서 도움을 자주 요청드리는데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이나 힘든 기색 없이, 늘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칭찬릴레이를 통해 응원과 감사를 전합니다.



보안팀 이진우 선생님

주사실의 도움 요청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임해왔습니다.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며 노력하겠습니다.

의용공학과 고종호 선생님 추천

저는 다음 칭찬 주인공으로 510병동 **정현** 수간호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 진심을 다해 보살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보호자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이팅게일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책임감 있게 돌보시는 모습에 참된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10병동 정현 수간호사 선생님

칭찬 릴레이에 추천해 주신 고종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간호 업무 속에서 동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칭찬 릴레이를 통해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느꼈고, 환자분들과 동료를 대하는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10병동 선생님들과 함께 친절하고 신뢰받는 병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무부 김미향 선생님 추천

소화기내과 **이정민** 간호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와 인사하는 선생님 웃는 얼굴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환자분들까지 미소 짓게 하는 마력을 가진 천사 바쁜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의 반복된 질문에 눈높이를 맞춰 웃는 얼굴로 답하는 모습은 30년을 근무한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어요! 고신의 마스코트, 항상 정민 선생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소화기내과 이정민 간호사 선생님

먼저 부족한 저를 칭찬 릴레이에 추천해 주신 고신의 천사 김미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병동과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근무하며 늘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으랏차차!" 임하고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신의 천사 같은 교수님들과 동료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칭찬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고신 안에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 O C U S V I E W

## 약제부, 2025 병원약사대회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미래병원 약사상' 수상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2025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한해동안 한국병원약사회에 큰 공로를 한 약사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시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미래병원약사상을 동시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약제부 이순화 약제부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병원 약제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약제부장은 헌신적인 자세로 환자의 안전과 병원 약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약제부 하혜민 약사는 최근 5년간 활발한 학술활동과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래병원약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 45세 이하 병원약사 중 학술 활동이 뛰어난 약사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병원 약제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의 성과를 조명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순화 약제부장은 "큰 상을 주신 병원약사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고신대병원이 선진약제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약제부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혁신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5.12.05.]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그림을 사랑한 소년' 선우군의 꿈을 응원하다



고신대복음병원 의료진이 뇌간교종을 진단받고 투병 중인 김선우 군(11세)과 그의 가족에게 헌신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발병 전까지 건강하게 지내왔던 선우 군에게 그림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유치원 시절부터 7년간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니며 애니메이션 장면과 다양한 동물들을 그려왔으며, 부모에게 "나중에 커서 제주도에서 그림 그리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던 소년이었다고 한다.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선우 군의 모친은 그동안 아들이 그려온 작품들을 모아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뜻을 의료진에게 전했고, 병원은 로비 공간을 선우 군의 개인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아와 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2024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올리브(All-Live)'을 운영하고 있다. 올리브팀은 완화의료의 '치료 포기'라는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환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2.10.]

## 부산 최초 '서구청-고신대복음병원-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고신대복음병원, 서구시니어클럽이 2025년 12월 10일, 부산지역 최초로 '지역 의료지원 사업단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부산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 서구는 노인 일자리 정책 연계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서구시니어클럽은 참여 어르신 모집과 직무 교육, 근무 관리 등 실질적 운영을 맡는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25.12.12.]

# F O C U S V I E W

##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서거 30주기 기념식 성료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 서거 30주기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의료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려 박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장기려기념사업회 및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임원, 고신대병원 교직원, 고신의대·간호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장기려 박사는 1951년 1·4 후퇴 당시 부산으로 피란해 천막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피란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장기려 박사의 서거 30주기를 맞아 ‘가난한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설립 이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긴다”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첨단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인술이 공존하는 병원으로서 박사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장기려 박사가 생전 거주했던 병원 3동 7층 옥탑방 입구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 기념 현판식이 진행됐다.

[2025.12.18.]

## 병원 교직원회, 고신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고신대복음병원 교직원회는 1월 5일, 고신대학교에서 고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 전달은 고신대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뜻을 모아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고신대복음병원 교직원회 관계자들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고신대학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공감 속에,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과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학교 공동체가 하나로 협력해 앞으로의 과제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나누었다. 고신대복음병원 교직원회는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학교를 향한 마음과 응원의 뜻을 담아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신대학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05.]

## 마이크라(Micra) 무선 심박동기 시술 100례 달성



고신대복음병원은 최근 마이크라(Micra) 무선 심박동기 시술 100례를 달성하며, 부정맥 치료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마이크라는 기존 심박동기와 달리 가슴을 절개하거나 리드를 삽입하지 않고, 대퇴정맥을 통해 심장 내부에 직접 삽입하는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다. 절개 부위가 없고 리드가 없어 감염 위험이 낮으며,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 심장내과는 마이크라 시술 도입 이후 축적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심박동기 치료를 시행해 왔다. 이번 100례 달성은 시술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관계자는 “마이크라 시술은 고난도의 술기와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치료로, 이번 100례 달성은 의료진의 팀워크와 환자 중심 진료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기술을 적극 도입해 부정맥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 F O C U S V I E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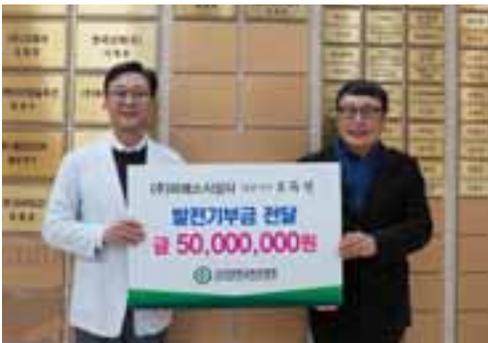
## 고신대복음병원, 노사 한마음 '사랑과 섬김의 헌혈 캠페인' 개최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1월 14일 '노사 사랑과 섬김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신대복음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복음병원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병원 측은 "동절기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해를 맞아 노사가 화합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전 10시부터 최중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노동조합 간부들이 먼저 출선수범하여 헌혈에 나섰다. 이어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등 교직원 100여 명이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헌혈 버스를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현장에는 평소 50회 이상 헌혈로 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장을 수여받았던 교직원들을 포함해, 입사 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온 직원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2026.01.14.]

## 부산 향토기업 (주)피에스시상사, 고신대복음병원에 발전기금 5천만 원 쾌척



부산을 대표하는 신발 소싱 전문기업 주식회사 피에스시상사가 고신대복음병원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주)피에스시상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중국 진강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24년 업력의 건설한 소싱 에이전트다. 세계적인 브랜드 '탐스(TOMS)'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11개의 해외 브랜드 및 3개의 국내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개발 단계부터 생산 관리,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독보적인 '원스톱(One-stop) 시스템' 노하우를 보유, 부산 신발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오득선 대표는 "지난 24년간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고신대복음병원에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의료진과 환우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2026.01.21.]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확장 개소... "중환자 특화 호흡재활 역량 강화"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1월 28일 오전, 호흡기내과 및 알레르기내과의 확장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확장 개소는 급증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원 측은 기존 진료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진료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외래 진료실 전 구역에 첨단 공기청정 및 음압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면역력이 약한 중증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확장을 통해서 '중환자 특화 호흡재활치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중증 천식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6.01.28.]

## F O C U S V I E W

**‘제14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 개최**

고신대복음병원(이하 고신대)은 지난 2월 2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로비와 각 병동에서 올바른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제14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전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 질 향상과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진행된 교직원 조회에서는 평소 환자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 ‘환자안전 모범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환자 안전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며, 이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완성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병원 내 안전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2.]

**고신대복음병원, 부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 2월 4일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지역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병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과 실질적인 산학연병 협력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고신대복음병원은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병원 조성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소개했다. 양 기관은 이를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중순 병원장은 “병원이 보유한 암 전문 치료 노하우와 최근 주력하고 있는 ICT 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병원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나아가 부산이 바이오헬스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고신대복음병원-이스타항공, ‘항공 의료 안전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복음병원은 2월 6일 이스타항공과 ‘항공 의료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급종합병원인 고신대복음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와 이스타항공의 항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기내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운항편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의 실시간 의료 자문 지원 △객실 승무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 처치 교육 제공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관광 상품 공동 프로모션 추진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상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양사 임직원 대상 항공 여행 편의 제공 등이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기내 응급 처치 교육 프로그램 및 실시간 자문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고, 이스타항공의 국제 노선을 활용한 글로벌 의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6.02.06.]

# KOSin 사랑in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2025년 하반기 국내의료선교

#### 1. 국내의료선교

2025.09.13.(토), 장산교회

▶ 참여인원: 33명, 총 진료인원: 192명

2025.10.25.(토), 거제 큰숲교회

▶ 참여인원: 31명, 총 진료인원: 50명

#### 2.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2025.10.26.(일), 합성초등학교(김해)

2025.11.22.(토), 동광초등학교(김해)

2025.11.30.(일), 진영금병초등학교(김해)



▶ 의료봉사를 위한 약품지원, 문화사역 및 어린이사역 지원



### 3. 장기려기념의료선교센터 의료선교 전시회

2025.12.18.(목)~2025.12.19.(금) 11:00~17:0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6동) 로비

▶ 전시 내용: 남아공, 필리핀, 태국, 국내 의료선교 사진 및 영상 전시



## 2026년 해외 의료선교 일정

### 1. 필리핀 두게가라오 해외 의료봉사

2026년 2월 11일 ~ 2월 18일, 참여인원 40여명, 진료 인원 400명

### 2. 태국 깐짜나부리 해외 의료봉사

2026년 8~9월 경, 예상 참여인원 20여명, 예상 진료 인원 200명

### 3. 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 해외 의료봉사

2026년 8~9월 경, 예상 참여 인원 50명 이상, 예상 진료 인원 1,000명

### 4.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해외 의료봉사

2026년 11월 예정, 예상 참여 인원 30명 이상, 예상 진료 인원 200명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 외래진료시간표

2026년 3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중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 연 순	화,목	화,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신 호 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매주 금요일 오전
심장내과	김 예 나	화,금	월,화	만성 콩팥질환, 급성 콩팥손상, 사구체 신염, 신장이식
	차 태 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 정 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 성 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장혈관흉부외과	김 봉 준	금	월,화,목	심부전, 폐고혈압
	김 수 진	화,목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박 성 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 종 인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조 성 호	수	화,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안과	이 상 준	화,목	월	망막(황반변성, 망막박리, 망막전막, 황반원공, 당뇨망막증), 포도막(홍채섬모체염, 포도막염), 유리체(유리체출혈, 유리체 혼탁), 백내장, 인공수정체탈구
	이 승 옥	월,수	목	녹내장(시신경유두부종, 시신경유두암, 시신경손상), 백내장
	김 창 주	금	화,수	소아안과, 사시, 복시, 근시, 성형안과, 신경안과(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알레르기내과	김 신 동	금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김 희 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악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암성통증센터	최 길 순	화,금	화,금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악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 지 현	수,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악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암성통증센터	유 제 상	월,금	금	방사선치료(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암성통증조절
	김 미 수		수	고용량 비타민치료, 면역치료, 암성통증조절
완화의학과	정 원 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공 심 김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지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박 귀 애			호스피스 완화의료
	윤 기 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 경 연	화,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 기 현	해외연수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유방외과	김 윤 흥	금	수,목,금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정 성 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 구 상	월	월,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인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형자 클리닉
	최 진 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인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응급외과	강 철 민			유방외과 일반진료
	정 주 원		화	응급외과
이비인후감사선 두경부외과	김 영 식		수	응급수술
	권 재 환	월,목	화	중이수술, 난청, 어지럼증, 귀의 염증, 상충성 중이염, 고막염, 소아귀질환, 인공와우이식, 선형성 이개질환, 궤돌, 캘로이드 중이, 잔주성비대, 측두종, 비성형, 인면재건, 안면골절, 비골절, 코피, 선재, 특별 진찰
	이 형 신	월,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 주 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 영 준	화,목	수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입막진 비대, 목의 혹, 입술
	김 동 영	수,목	금	부비동 종양, 부비동 질환, 알레르기 비염, 수면무호흡질환, 코피, 기능적 코성형, 비골절,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심 영 주	목	월,수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암재활
	정 호 중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김 호 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재발방지클리닉
	이 상 신	해외연수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정형외과	김 현 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 공 의	월,수,금	월,수,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권 영 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 소 학	화,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 창 수	월	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직업환경의학과	김 지 연	금	월,화	족부(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심 대 무	화,금	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김 정 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 지 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치과	배 현 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 현 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김 희 진	목	월,화,목	치과보존과
피부과	서 고 은	화,수,금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 은 숙	화,수,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 민 경	월,목	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우 혜 문	월	월,수,금	보존과 일반질환(충치치료, 근관치료, 치아 외상, 치아 재식, 치아 이식, 미세현미경 치료, 임플란트 치과치료,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및 기타 치과 질환)
혈액종양내과	장 민 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 중 빈	화,목	화,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해의학과	서 기 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 실 화	수	수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호흡기내과	김 희 영	월	월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 범 수	수	수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신 성 훈	월,수,금	월,수,금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호흡기내과	이 호 섭	화,수,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 은 미	월,수,목	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 다 정	해외연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 만 흥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호흡기내과	장 태 원	월,수,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 철 호	화,금	수,목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 태 호	수	수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김 태 윤	월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김 도 섭	화	금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

